

## 완도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박차

해양수산과학원 등 관계자 50여 명 참석 전문가 세미나 개최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략 사업”

완도군이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학계 교수들을 비롯한 해양수산과학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 바이오연구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최고 해양 바이오산업 전문가인 (주)엘컴 I&D 최미경 소장의 해양바이오산업 소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참여자 제안 및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김수일 명예 교수는 “해조류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품목 선정 및 생산,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시설 투자 및 연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조류 바이오 헬스 연구단지 운영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교수는 “해양바이오 활성소재 개발 및 해양바이오산업 사업화로 해조류 자원의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완도군과 조선대가 협력이 필요하며, 해양식물자원 개발 통합 관리 및 개발 지원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전남도청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략사업이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으로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 바이오 핵심 기술 육성, 소재 확보

및 대량 생산체계 구축, 연구/생산 인프라 확충, 해양바이오산업 선순환 생태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완도분원 유치, 프랑스 해양생물연구소와 생산/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 확대 지정, 2021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 개최’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정책에 부합하며, 다양하고 고품질의 해양바이오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에 가장 적합한 미래 산업이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역설했다.



완도군은 23일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와 학계 교수들을 비롯한 해양수산과학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바이오 블루존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182억 원 중 110억 원을 해양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 조성에 투자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 무안공항, 1주일 5천명 육박 일본행 여행객 1천명대로 ‘뚝’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여행 자제운동 등의 영향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해 일본을 간

여행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관리하는 7개의 국제선공항에서 일본으

로 향하는 운항과 여객 감소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안공항을 이용한 여객들의 수는 7월에 비해 8월에 급격하게 감소했다.

무안공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수는 7월 첫번째 주가 42편, 두번째 주 44편, 세번째 주 44편, 네번째 주 40편, 5번째 주 45편으로 나타났다. 8월 첫째 주에는 40편, 둘째 주 38편, 셋째 주 38편, 넷째 주 40편 등으로 7월보다 감소했다.

일본행 여행객도 7월 첫번째 주가 4339명, 두번째 주 4241명, 세번째 주 4178명, 네번째 주 4066명으로 감소했다가 5번째 주 485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8월 첫째 주에는 3684명, 둘째 주 3144명으로 줄었고 셋째 주에는 1682명, 넷째 주 1204명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윤 의원은 “지방 국제공항의 경우 일본 노선에 편중된 관계로 이와 같은 위기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노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

내일 학교법인 창립총회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민간 조직인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25일 오후 3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공대 설립 비전 선포 및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사는 지원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한전공대 설립용역을 진행해 온 A.T커니가 대학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전공대 비전 선포식도 함께 진행된다.

80명 규모로 출범하는 지원위원회는 총괄지원과 대학설립 지원, 연구소 유치 지원, 클러스터 조성 지원, 정주 여건 개선 지원 등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민 홍보와 대학 설립 및 운영 관련한 법률 재개정과 국민 공감대 마련, 연구소·클러스터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공대 범 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전도 27일 서울에서 ‘학교법인 한전공대’ 창립총회를 갖고 대학설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이사회 구성과 정관 등을 의결한다. 법인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개방이사, 교육이사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거쳐 한전은 곧바로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하게 되면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민국가정원에서 느끼는 가을 정취

25일 전남 순천시 순천민국가정원에서 시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19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 humanity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9.7-10.31**

행사장소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재)광주디자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은암미술관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디자인센터